



나래이동통신, 인터넷폰 사업 진출

수도권 뼈때 및 시티폰 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사장 김종길)이 인터넷 전화사업에 뛰어든다. 나래이동통신은 인터넷 전화사업을 위해 최근 미국 장거리·국제전화사업자인 IDT사와 기술제휴 및 장비공급계약에 관한 사업협력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타 주요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통신,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인터넷폰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인터넷폰 사업자가 본격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래이동통신은 IDT사의 '넷2폰 다이렉트'라는 인터넷폰 서비스를 들여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화대 전화방식 인터넷폰 사업으로 PC를 거치지 않고 일반선택 전화만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기존 전화료에 비해 혁신적인 초저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PC대 PC방식이나 PC대 전화방식 인터넷폰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전화대 전화방식 인터넷폰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

으로 규정해 내년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래이동통신은 이 서비스를 위해 현재 무선호출과 시티폰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인터넷 전화부문과 연결한 네트워크 설계를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망의 개선과 고급 압축 전송기술의 개발로 일반 전화와 동등한 수준의 통화품질로 향상시키고 아울러 음성전송 뿐 아니라 팩스전송 및 각종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LG정보, 말로 가는 휴대폰 개발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이 이동전화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던 음성다이얼링기능을 단말기 자체에 내장시킨 '말로 가는 휴대폰'을 개발, 시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음성명령만으로 전화

를 걸 수 있는 음성다이얼링기능을 단말기에 내장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 신제품 2종류(모델명: SCH-370, SCH-350)를 개발, 출시했다. LG정보통신도 음성다이얼링기능을 내장한 최경량 이동전화기인 'LG프리웨이'(모델명: LGC-500F)를 개발하였다.

이들 제품은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지원받던 기존의 음성다이얼시스템 대신 단말기 안에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코드로 변환시키는 음성인식소프트웨어를 내장, 자주 통화하는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입력, 사용시 입력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부르면 동일인 여부를 검색한 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게 된다.

두 회사는 신제품 단말기의 음성인식률이 단말기를 들고 이용할 때는 95% 이상, 핸드프리로 사용할 때는 91~92%의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개의 신제품 가운데 SCH-370 모델엔 직선형태로 견고함을 강조, 남성 취향의 디자인을 채용했으며 SCH-350 모델은 여성 취향의 곡선미를 가미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삼성제품은 124mm×45mm×25mm 크기에 무게 145g으로 초슬림화를 실현했으며 이용시간은 디지털방식일 때 연속통화 백20분(표준



형 배터리)~3백70분(대용량배터리), 대기시간은 27시간(표준형배터리)~백15시간(대용량배터리)이다. 삼성은 또 이 제품이 수신하지 못한 전화의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발신번호 메모기능, 데이터메시지 서비스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LG정보통신의 'LGC-500F'는 126mm×48mm×25mm의 크기에 무게 135g으로 CDMA 이동전화단말기로는 최경량화를 실현했으며 조그서틀기능을 채택, 다이얼 조작으로 각종 메뉴와 전화번호 목록 99개를 검색, 발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용시간은 소형 표준배터리 기준으로 연속통화시간 백50분, 대기시간 68시간이다.

삼성전자와 LG정보통신은 이같은 신형 단말기의 출시로 음성만으로도 전화를 걸 수 있어 차량운전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당권장 소비자가격은 백10만원대.

인터넷자동차 등장

인터넷자동차가 나와 관심을 끈다. 실리콘 벨리의 다임러 벤츠 연구센터는 기존 카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인터넷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명 '메르세데스 E420'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PC와 평판스크린, 네트워크 장비를 모두 갖춘 일명 '웹카'는 벤츠사의 기술개발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로 상용



화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다.

웹카는 3개의 평판채널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라디오 위에 있는 계기판 중앙에, 나머지 두 개는 앞좌석 등받이 뒤에 설치돼 뒷좌석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이 스크린들은 차 뒷좌석에 있는 IBM싱크패드 노트북컴퓨터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컴퓨터, 세가 새턴 게임기 등 여러 대의 컴퓨터와 연결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터넷 연결은 AT&T의 무선 디지털 셀룰러폰과 메트릭롬의 무선모뎀으로 이뤄지며 위성과 연결된 위치추적시스템(GPS)도 갖춰 자동운전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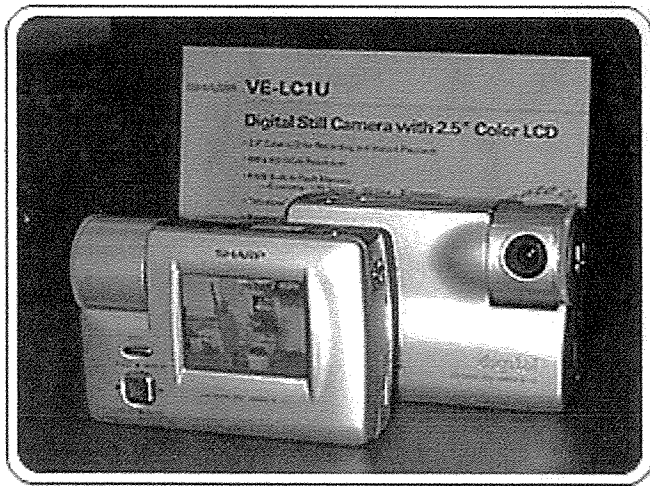
이 차량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순히 전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차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원격지에 있는 자동차관련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 정비소에서 인터넷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차량의 각 부분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점이 끝나면 운전자에게 가까운 정비소의 위치를 알려 주고

정비소까지의 도로 안내, 할인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자동차의 한정된 기능보다는 '움직이는 사무실(mobile office)'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에 이 자동차 개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2000년대에 이르면 모든 업무 환경이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고 움직이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완벽한 사무 환경을 갖춘 차량은 매력적인 구매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샤프전자산업, 디지털카메라 출품

샤프전자산업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LCD창이 넓은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인다. 디지털카메라 VE-LC1U는 기존 제품이 작은 LCD창으로 인해 촬영이 불편했던 점을 말끔히 해소한 제품으로, 저반사, 광시야각을 가지고 찍고자 하는 대상을 좀더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광통신이 가능해 별도의 연결없이도 데이터의 전송과 수신이 가능하다.

640×480화소의 고품질 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하며, 자동 초점맞춤, 화이트 밸런스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2백70도 회전렌즈를 이용해 촬영이 불편한 앵글도 자연스럽게 다각도로 촬영할 수 있고, 심지어는 렌즈 회전을 통해 촬영자 자신까지 촬영할 수도 있다. VE-LC1U는 4MB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어 파인 모드인 경우 30매, 표준 모드는 60매, 이코노미 모드로는 백20매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카메라나 디지털 컬러프린터 또는 액정 뷰캠 등 IrDA방식을 채용한 모든 장치와 호환된다.

SK텔레콤, PC통신서비스 '넷츠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PC통신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사에서 인터넷기반의 PC통신서

비스 '넷츠고' 설명회를 갖고 무료서비스를 시작,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넷츠고는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를 자

우자재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방 등 기존 PC통신서비스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과 PC통신이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넷츠고서비스를 위해

전국 전용망인 01442망을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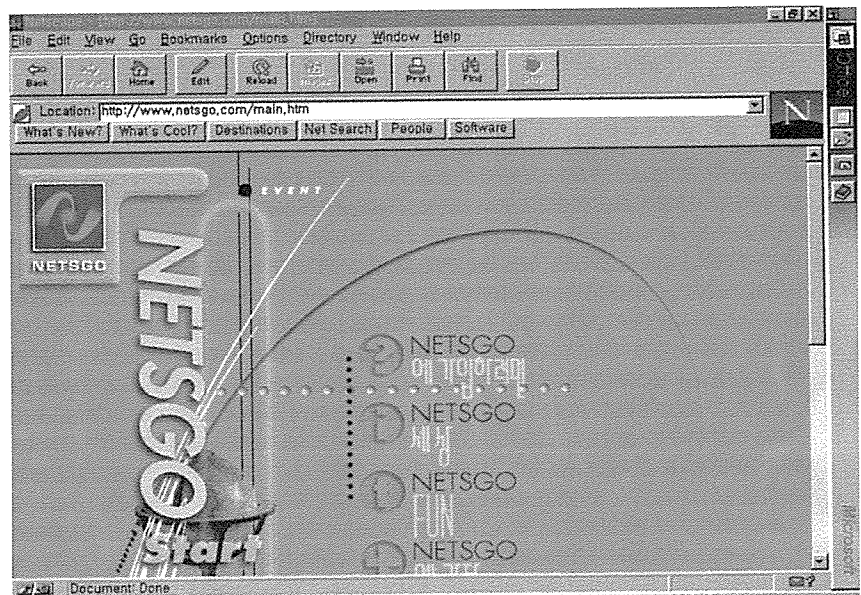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15개 도시에서 접속가능한 공중전

화망(PSTN) 등 5천회선을 개통, 33.5Kbps 및 56Kbps의 고속서비스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회선수를 1만포트로 늘릴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월 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넷츠고는美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신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4.0(IE4.0)이 내장된 넷츠고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츠고는 시사/날씨, 게임/오락, 교육/취업, 금융/경제, 생활/문화, 방송/연예, 통신광장 등의 메뉴를 통해 인터넷 문서규격인 HTML(하이퍼텍스트)형식의 정보를 제공,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넷츠고를 통해 제공될 인터넷기반의 콘텐츠확보에 주력, 현재 40여개에 이르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포트당 가입자수를 20명 이하로 유지



함으로써 통신소통을 원활히 하고 ISDN(종합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접속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초보자층을 집중 공략하고 기존 천만 이동통신고객을 넷츠고 이용자로 흡수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구사, 연말까지 2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국IBM 개발, 인터넷 영어 번역 S/W

이제는 인터넷 영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한국IBM은 인터넷 영어정보를 실시간에 한글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 '양코르 버전 3'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IBM은 시험판을 선보이고 한국IBM 인터넷 홈페이지(www.ibm.co.kr)를 통해 무료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선보인 양코르 버전3은 웹브라우저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즉시 한국어로 번역한다. 종전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데 비해 훨씬 절차가 간편해졌다.

또한 2개의 화면을 열고 영어와 한글도 대조해 볼 수도 있다. 사용자가 사전을 직접 입력편집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분야 전문용어사전도 함께 지원한다. 한글 윈도우95와 웹브라우저, 16MB메모리를 갖추면 넷스케이프 야후 등의 인기사이트를 손쉽게 한글로 검색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어처리연구실과 공동으로 번역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한국IBM은 양코르 버전 3의 완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IBM은 이 소프트웨어가 약 90% 이상의 번역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어 번역 소프트웨어는 일본어의 한국어 번역은 이미 90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영어는 국어와 언어 체계가 상이해 50수준의 해독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IBM의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발표대로 90 이상의 번역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번역 소프트웨어분야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눔기술, C/S환경의 그룹웨어 워크플로우 출시

나눔기술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엔터프라이즈형 그룹웨어인 워크플로우(WorkFlow)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업의 문서유통시스템에서 정보흐름 기반구조 구축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워크플로우는 탁

월한 구조와 뛰어난 확장성, 상용 DBMS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트라넷의 일반적인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룹웨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인트라넷 그룹웨어인 스마트플로우(SmartFlow) 중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트라넷 제품인 인트라넷 웨어 키트(Intranet ware Kit), 한글 검색엔진인 컴파스(Compass)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컴파스는 부산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연언어 처리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7만개의 기본 어휘와 사용자 사전 추가기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 수집도구인 로봇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격은 워크플로우는 노드당 30만원, 스마트 플로우는 유저당 10만원, 엔진은 천7백만원(500유저)이며, 인트라넷 웨어 키트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며 사양에 따라 6백~천3백만원이다. 57

